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회고록

전대협 30주년 특집기고

전대협 30년, 신화 생성의 기억과 586의 오늘에 대한 성찰

최상명 _우석대학교 교수, 전대협 1기

1. 들어가는 글: 전대협 30년, 신화 탄생의 기억 거슬러 올라가기

어떤 사회 안에 형성된 신화에 대해 글을 쓰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필자가 신화의 대상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렇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는 분명 한국 현대사에, 민주화 운동사의 신화이다. 신화 탄생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신화는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다. 신화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이데올로기는 물질적 실천 기구들을 만들어 인간을 행동하게 한다. 시대정신에 합목적한 이데올로기와 실천의지를 가진, 백만 대오를 형성한, 그래서 전대협은 분명 신화였다. '불패의 신화'이면서 전대협은 학생운동 전체의 역사에서 신화이다. 전대협 신화는 시간 흐름에 따라 386, 486, 586세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우리 사회 안에 묻어 들어가 있다. 운동사 속에 포착된

한 현상이 사회와 함께 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협!" 전대협 결성 30주년을 지낸 현재 전대협 출범의 시대정신인 '자주화, 민주화, 통일'의 과업은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이다. 전대협의 이름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구었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30년이라는 한 시대를 돌이키는 지금 감동과 후회, 환희와 반성이 번갈아 가며 가슴팍을 두드린다. 신화는 영웅을 만든다. 영웅을 만든 신화가 사회 속에서 지속되면 영웅은 지도자가 되고, 신화가 전설로 뒤바뀌면 영웅은 기득권이 된다. 우리의 신화는 진정으로 사회 속에 묻어 들어 지속되고 있을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신화의 생성 시기로 시간을 되돌리려 한다.

전대협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군부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 진영의 투쟁을 1986년부터 살펴야 함은 물론, 학생운동권의 정치와 조직 노선의 변화도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이 글은 1987년 8월 19일, '불패의 신화'요 대한민국 학생운동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던 전대협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당시의 정치 정세와 학생운동권의 정치·조직 노선의 변화를 통해 추적한다. 추적은 기억이라는 도구를 타고 시공을 넘나들게 될 것이다. 당시 동지들과의 인터뷰가 기억의 호출을 도왔다.[1] 필자는 1987년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서울

1) 인터뷰에 응한 이는 박영호(충북대학교), 신채호, 우상호(이상 연세대학교), 신원철(인천대학교), 정지환, 이철우(이상 서울시립대학교), 최진섭(숭실대학교), 정화려(한양대학교), 최종윤(고려대학교), 정훈(전북대학교) 등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와 전대협의 회원이었고, 1987년 말 대선 국면에서는 전대협의 임시 지도부로 활동했다. 1987년 탄생한 전대협은 6년의 조직적 삶을 다하고 '한총련'이라는 새로운 학생운동조직에 자리를 내어주고 시대를 마감했다. 이후 그들은 정치·사회 전반에 투신하여 활동한다. 그리고 작금에 이르러 '전대협 세대 전성시대'를 구가하는 사회적 진군을 이룩한다. 어느덧 이 사회에 중추가 되어 있다. 하여 이 글의 후반부에 전대협 신화 탄생의 30년이 지난 지금, 전대협 활동가들의 시대적 소명에 관한 그들의 역할을 진단하는 소회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신화의 생성은 시대적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신화 생성의 기저에는 필시 사회경제체제 전반에 신화를 생성시킬 어떤 요소가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다. 필자는 그 기저가 군부독재라는 국가적 폭압기구와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자기 보호', 이른바 '이중 운동'(Karl Polanyi 1944)의 작동에 있었다고 믿는다. 정치영역과 경제영역이 계급적 합세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되고, 경제적 착취가 강화되면 그 사회에는 사회를 올바로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한 사회의 자기 보호 본능이 물리적 운동의 형태로 발현한다. 폭압과 착취가 국가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라는 이유로 국민들에게 강요되는 상태에 이르면 우리는 그것을 파시즘(전체주의)이라 말한다. 그러나 파시즘의 발로는 곧바로 사회의 자기 보호를 역동적으로 고양시켜 국민적 대저항의 운동 역량(물리적 힘)을 생성하는 것이 역사의 운동 법칙이었다. 이 물리적 힘, 사회의 자기 보호를 위한 사회구성원의 저항과 물리적 대응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그

것이 곧 변혁으로의 이행 과정이 현실로 실체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대협이라는 '신화'의 발로는 어디에서 첫 걸음을 시작했을까? 1987년 대한민국은 군부독재의 폭압이 기승의 정점을 향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폭압에 맞서는 사회의 자기 보호 역시 물리적 에너지를 분출하며 사회 안에 작동을 시작했다. 민주화의 열망이 국민적 전선의 열기로 분출되고 있었다. 전대협을 일군 청년학생들이 그 때 그곳의 역사에 함께 서 있었다. 국민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거기 피 흘리며 서 있었다. 서대협과 전대협은 그래서 민주주의 선봉대로, 시대의 개척자로 그 시대의 한 표상이 될 수 있었다. 전대협의 신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파시즘적 사회정치체제의 폭압과 사회의 자기 보호라는 국민적 열망이 투쟁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그 때, 독재와 대중과 시대정신이 맞선 그 때였기에, 그들은 신화를 써 내려갈 수 있었다.

전대협은 그 이전의 대학생 조직에 상시적으로 동원된 이름, '투쟁위원회'와는 다른 조직이었다. 전대협의 시대, 동시대를 경험하고 시대의 모순을 사회의 자기 보호 투쟁으로 함께해온 일반 학우들에게 전대협은 무엇일까? 전대협을 일굴 당시는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경계가 없이 함께 투쟁했고 국민적 승리를 이루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함께 투쟁한 전대협 활동가들과 일반 학우들은 과연 전대협에 대해 여전히 정서(identity)를 공유하고 있을까? "당신은 전대협이었습니까"라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적어도 1993년 출범한 '전대협 동우회' 회원들 외에는 사람들 대부분의 대답은 "아니요"일 것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다. 전대협 시기, 우리 모두는 시대정신에 정초되어 시대적 모순과 억압에 대한 사회 투쟁의 시민 주체로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실에서 폭압적 국가기구가 보여주었던 독립운동 세력 혹은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잔인하고 치밀한 폭력을 지켜본 그들(일반 학우들)에게는 적어도 '운동권'이라는 낙인(stigma)으로부터는 자유롭고 싶은 내밀한 마음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같은 크기로 자신 안에 커져간 마음은 이내 자신의 외향이 되어 소시민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이제 전대협은 전대협 활동가 그룹과 일반 학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같은 시대, 같은 시대정신으로 역사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 탈동조화(decoupling)되었다는 것은 87년 6월항쟁의 민주화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음을 실감케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와 함께 사회 안에서 새로운 이행의 과정을 단 한시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그래서 사회운동의 궤적 안에서만 신화의 담지자를 허락한다. 끝없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안아 앞으로 나서는 자가 있을 때 신화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사회적, 역사적 책무자로서의 역할과 직업 및 출세 등의 개인적 자아의 욕망이 구별되어 작동했던, 그래서 불안정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87년 6월 이후의 30년을 살아오고 있는 것이 1980년대 후반을 청춘으로 지내온 사람들의 정신사적 삶의 경로였다. 전대협 활동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시절 우리가 서대협(지역의 각 지구대협을 포함하여)과 전대협의 이름 안에서 대중과 활동가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시대적 모순의 혁파라는 역사의 현장 앞에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여들었던 이유를, 나아

가 운동권의 전유물로 인식되었던 학생조직이 전대협이라는 대중 조직으로 승화되는 과정에서 시대와 지도 대오의 함수 관계를 찾아 나서는 일은 민주화의 과제가 미완으로 남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자로 오롯이 서고 있지 못한 오늘,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 시절 전대협이 신화가 되었던 과정을 찾아나서는 일, 그 신화의 기원을 찾는 항해의 돛을 올려 보자. 우리가 찾으려는 신화 탄생의 비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어쩌면 우리가 믿고 싶은 그 어떤 것에 대한 바램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2. '애학투련' 새롭게 기억하기: 인식의 자각과 실천 행동의 길항, 모순자들의 슬픔

신화생성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1986년 10월 28일 출범했던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이하 애학투련)에서 찾아야 했다. 전대협 출범 9개월 20일 전, 모든 이들의 기억에 학생운동사의 가장 선도적이고 과격했다고 기억되는 애학투련에서 전국적 대중운동조직의 맹아가 시작되는 역설이 거기에 있었다. 1986년 10월 31일, 군부독재의 가을이 시대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즈음,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 '황소30' 작전이 자행되었다. 전국 단위의 학생운동조직,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하기 위해 서울 및 지방 소재 대학생 2000여 명이 건국대로 집결했다. 그러나 그들은 애학투련 건설 당일(10월 28일) 경찰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외부 학생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군부독재정권의 학생운동조직 일망타진의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야 했다. 당시는 집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대학가뿐 아니라 시위 예상 지역에서 불법 검문 검색이 일상화되어 있던 시대였다. 애학투련 결성집회가 마무리된 직후 학내로 들이닥친 수천여 명의 전경들은 이내 학생들을 건대 본관과 사회과학관, 중앙도서관 등에 고립시켰다. 그리고는 이내 이들 대학생들을 '공산혁명분자의 건국대 폭력점거난동사건'으로 규정하고 언론전을 펼쳤다.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은 10월 31일의 작전을 위해 10월 29일부터 물과 전기, 외부와 연결되는 전화망 모두를 끊어버렸다. 진압은 무자비했다. 경찰병력 7950명이 동원된 그 날의 진압은 헬기가 동원되고, 소방차가 물을 뿌렸으며, 사과탄과 소이탄이 무차별적으로 투하되었다. 일부 학생들은 화염병으로 완강히 저항했고, 헬기에선 투항하라는 전단이 뿌려졌다. 그리고는 이내 전경들의 건물 진입과 몽둥이 세례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3일간의 철야투쟁에 지쳐 백기를 흔들기도 했고,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폭력은 계속되었다. 80년 광주의 5월을 짓밟고 들어선 폭력정권의 면모가 유감 없이 발휘되고 있었다. 오전 10시 20분 진압작전을 마무리한 전두환 정권은 학생들에게 집시법 대신 방화, 파괴, 무단침입 등의 죄목을 적용하여 1525명을 연행, 이 중 513명의 여학생을 포함 1288명을 구속시켰다. 단일 사건으로 최대의 구속자를 냈다.이때 군부독재정권이 집시법을 적용하지 않고 방화, 무단침입, 파괴 등의 죄목을 적용한 것은 학생들의 민주화운동 명분을 없애고, 이들이 정치범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간교한 계략이었음

▲ 건대 농성 진압 소식을 전한 경향신문 1986년 10월 31일 자 11면. ⓒ 경향신문

이 분명했다.[2)]

198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정권 연장 음모와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화운동 진영 간의 사활적 싸움이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의 민주화운동 세력 초토화 작전은 정당, 언론, 민통련[3)]을 비롯한 재야 운동권, 학원가를 비롯하여 지역과 부

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archives.kdemo.or.kr) 사료 컬렉션의 1980년대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농성사건'(검색, 2017년 8월 21일), 프레시안. 2017/01/19.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의 기사를 참고했음.

3) 전두환 군부독재가 한창이던 1985년 3월 29일에 23개 재야단체가 연합하여 발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문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었다. 정치판을 둘러싼 국민전선은 정권 연장의 호헌 세력과 이를 저지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개헌 세력이 맞서는 형국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 해 가을 발생한 애학투련의 출범을 군부독재정권은 '공산혁명분자의 건국대 폭력점거난동사건'으로 둔갑시켜 색깔론의 덫을 씌워버림으로써 체제 유지와 독재 연장을 위한 여론 호재로 활용코자했다. 그러나 애학투련이 작전명 '황소30'에 의해 공산 세력의 과격 행동으로 둔갑되었다 하더라도, 당시 애학투련의 지도부는 민통련을 비롯하여 야당과 재야운동권이 직선제 개헌을 고리로 '민주대연합전선'이 형성되는 것이 타당한 전술이요, 학생운동 진영 역시 기꺼이 동참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의

했다. 이후 민주대연합 전선의 중심축으로 활동하게 된다. 1984년 6월에 출범한 민중민주운동협의회(민민협)과, 같은 해 10월 출범한 민주통일국민회의(국민회의)가 통합된 재야운동조직이다. 약칭인 '민통련'의 공식 명칭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다. 민통련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당 및 학생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구심점 역할을 했다. 1987년 5월 야당(당시 신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을 총망라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6월항쟁을 주도했다. 민통련은 1987년 대통령선거를 둘러싸고 양 김(김영삼·김대중) 씨에 대한 입장을 놓고 김대중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후보 단일화 등 노선상의 내부 분열이 야기되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간을 가장한 군부독재정권에게 야당이 패배하면서 해체의 길을 걸었다. 1989년 1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으로 재야 민주화운동이 대체되었다.

기억 속에 애학투련(건대항쟁)은 과격 투쟁의 반성 지점으로 기억된다. 한편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애학투련의 출범 이유와 당시 애학투련 지도부의 정치 노선을 살피고 나면, 애학투련이 얼마나 왜곡되어 기억되었고 슬프게 마무리되었는지를 실감하게 된다.

1986년 10월 27일, 그러니까 애학투련 출범 하루 전, 애학투련의 기관지 『애국학도』 호외에서 "현 정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신민당 서울대회를 전후로"라는 제하의 글에서 1986년 11월 29일 신민당이 추진하는 '직선제 쟁취 및 장기집권 음모분쇄 범국민 실천대회(약칭, 범국민대회)를 바라보는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 발표를 통해 "현재 민족민주운동의 당면한 정치적 과제가 군부독재 체제의 종식에 있음을 깨닫고 정치적 과제가 달성되는 그날까지 애국민주 세력과 신민당이 굳게 연대하여 싸워 나가기를 바란다"고 적고 있다. 더욱이 이 글의 앞에서 신민당이 군부독재 정권의 장기집권 의지를 분쇄하기 위해 직선제 개헌과 장외 투쟁 노선을 천명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신민당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라는 성명서에서는 "신민당 집회는 단순히 정치공방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전두환 일당을 향한 위협이 아니라 전 애국의 결집의 장이다. 따라서 이는 전 애국민이 강하게 연대하여 이후 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행진에서 커다란 분기점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기술함으로써 이른바 민주대연합 노선을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정치 노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범국민 실천대회에 참여할 학생들에게 행동원칙까지를 제시했는데, "이 땅의 애국투쟁의 진정한 주인은 애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민임을 자각하고 애국민에게 근거하고 애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벌일 것"과 투쟁에서 가장 앞서 싸우는 모범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른바 민주대연합 노선의 핵심적 전략전술의 토대가 되는 대중운동의 원칙을 올바로 자각하고 있었다.

애학투련은 정치 노선뿐만 아니라 조직 노선에 있어서도 그간의 비밀적, 비대중적 학생운동의 편향을 반성하며 민주적 조직 건설의 대전환을 기했다. 1986년 10월 28일의 '전국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발족 선언문'에서 애학투련은 그간의 학생운동의 오류에 대해 뼈아픈 고백과 새로운 자아의 탄생을 위한 결의를 밝히고 있다.

우리는 그간의 우리 투쟁조직의 오류를 극복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85년의 전학련 삼민투는 백만 학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라줄 것을 강요하여 고립되어버렸으며 진정 백만학도 모두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대표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86년 상반기의 전민학련 또한 우리 애국학도들의 이념성과 대적성을 부각시키는 데 어느 정도 일조했을지 모르나 소수 몇몇 대학만을 중심으로 비합법적이고 폭력적인 투쟁에만 매달려 스스로 고립됨으로써 적들의 탄압에 그냥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은 식민지 한반도에서 우리 청년학도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선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거의 오류를 철저히 극복하고 광범한 모든 대학을 포괄하여 전국의 모든 백만 학도와 함께 싸워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하나, 우리 전국 반외세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은 일부의 학우들 것만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호외 애국학도

발행인: 전국 반외세반독 애국 학생투쟁 연합 선전국
발행일: 1986.10.27

11·29 신민당 집회를 바라보며

Ⅰ. 민중시점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신민당 집회 예비용 인쇄물 -

전두환일당의 외려의 기반이 기껏 장기집권 음모는 모든 애국세력, 애국인 앞에 그 실체가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다. 전국곳곳에서의 연대 공방전이 속개되 이번을 이번에 두 번 연속한 승리수에 불과한 것임이 아시안게임 이후 사정되고 있는 일련의 하수인 한양전을 속개하 보다 명확하게고, 마침내 애국인의 분노는 전두환일당의 심장부를 향해 예리한 비수로 겨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두환일당은 반민중도시에 마지막 영상까지 저버리고 우리의 순결한 사상과 민주의지를 훔쳐보고 짓밟고 노예적 욕망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광폭(?)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산 두려움 결과과 지금은 분노를 극지 못함과 동시에 전두환일당의 도발에 대한 가장 통한 대응을 신속하고 굳게 결의, 심장 혈이랑 결전장을 느낀다.

이제까지 우리는 전두환일당의 광폭가 최이라는 현상적인 이유에 대해 분석하 인식해야 하며 이에 기초한 일련의 정치전략계를 세워 해결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처해있는 것이다.

1) 지금의 전국는 왜 절박한가?

지금은 전두환일당이 영구지배음모가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은 미국의 신민이 제재로서 당한 군부독재에 대한 제한과정에서 기반한 관변정치의 공정한 개헌절규가 결국적으로 거절되는 것임이며 민중운동에 대한 지속적 탄압이 우리에는 절박이다. 그러나 그 반대급부로 민중의 민주화요구 투쟁의고양기를 맞이하여 보는 세계로부 민중의 한명성 에너지를 참을시킬 수밖는 호시기이다. 아울러 사상초유의 국학투도한 정세로 표면화되고 있는 전두환일당의 정통과 명분적 요구는 우리에게 절박한 정방향에 대한 해고와 집없는 절차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먼저 민중과 정통은 어떻게 이해되는가? 영구지배를 위한 음모도 대과 최전초건에 정로로 나타난다. 그것은 (1) 민중운동에 대한 극한한 탄압, 민상정치를 통해 영구지배에 앞서 최대 난관인 지주·민중세력의 반성을 마리하여 심장의 대상세력을 없애고 (2) 용공조작, 안보 이데올로기 강요를 통해 '자유·민주세력'에 대한 막대한 해체 및 조건형성과 이용의 방구, 지배를 위한 프로그램장악의 문제점을 장출하고 (3) 전에국 변혁민중을 향한 그들은 영향을 선 결합력과 정치력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저지하고 (4) 국민의 열기를 최산시키는 기만적인 개헌을 통하여 영구지배음모를 관철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전일당의 영구지배개헌을 지금의 시점에서 폭제하지 못하, 절만 여상기능한 과정을 상태를 때, 용 제대의 민정당의 만독 개헌방의 내년 1월의 일방통과방식이 1상 무연할 것이다. 즉, 군부독재세력은 신민당과의 합의개헌 정신에 상반한 한기를 느끼며 신민당을 변한, 분할시키는 정책과 애국민주시민과의 분리공작을 지속하시 기반선, 기반선 정비정작(국회해산, 정계수의 3/2)을 확보하에는 동시에 내간적상에 동과를 이뤄내려할 것이다. 이는 대선으로 실질 가능한 방식은 신민당의 선택적 국민투표안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현행 선거법의 조정이라는 결과의 결과와 이것이 아닌 방식 속에서 국회해산 이후 새로운 국회선출을 통한 선명한 국민투표의 채신이라는 현재 처음하기 어려운 일련의 과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적다. 마지막 으로는 올해의 1차 결산을 하고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정신인데, 이는 앞으로 거쳐야할 정치일정이라는 보단과 미국민주개헌의 여정에서 우리국민들의 위 기와 그영향 수인하는 것에서 「오한 최반한 가능성이다」 이러한 세가지 가능성이 여럿에 변심하될 것인가는 결국 속에서 올해, 및 반대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최대한 확보하는 속에서 전통결해로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세분석에 근거했을 때 우리의 이후 투쟁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술해야할 것인가? 그것은 현행의 선후환처럼 장기집권저지를 전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현재의 민중의 요구는 이러한 민중은 단지 이를 표출할 출구만을 찾고 있는 것이다.

2) 현재의 정세에서 우리가 취득해야할 목표는 무엇인가

전이한 제 세운식을 근거로 현재에 있어서 우리투쟁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째로, 전술에 의해 자행되는 기반적인 개헌음모를 폭로, 확산하여 전술의 정통한건을 국소화시키고 그 결과 그들 스스로 자신의 무덤에 속해를 제공토록 해야한다. 개헌절차를 통한 전술의 연장전인 독재정권 개헌음모를 각계의 구체정 해개(인민단,세력확산)을 통해 폭로하여 광범한 공감을 자지 않고는 개헌이 불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반면에 전술의 산만적인 공세방어의 의해 독재전권이 개헌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현의 명가로 인해 우리의 민중은 결고 전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이번 폭해를 제우는 동력은 민중들의 연동에 전두환 군사적 정도로서 우리는 지속적인 민주민권의 투쟁을 벌여

▲ 애학투련 출범 하루 전, 호외로 발간된 애학투련 소식지,
자료: http:// archives.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체 애국학도의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단위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민주적 과정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서 지도부를 구성한다.

둘, 민주집중제의 일반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셋,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공개적 논쟁을 통하여 강력한 사상의 통일을 이룩한다.

넷, 행동통일의 원칙을 지키고....

다섯, 작은 차이를 내세워 분열을 초래하는 자세를 척결한다.

이후 이어지는 발족문의 후반부는 반종파적 단결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군부독재에게 '공산혁명분자의 건국대 폭력점거난동사건'으로 둔갑시키기는 데 빌미가 된 성명서의 끝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하나가 되어 전진하자! 진달래 꽃 머리에 꽂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해방 춤을 흐드러지게 추게 될 그날까지!![4]

애학투련은 당시 정치 상황의 인식과 정세 분석을 통해 민주대연합

4) 강조는 필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archives.kdemo.or.kr) 사료 컬렉션, 1980년대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농성사건'(검색 2017년 8월 81일).

노선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었음은 물론, 국민 대중을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사고하는 대중 노선과 민주적 조직 건설의 이행을 중시하는 조직 노선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같은 인식의 대전환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학생운동조직이 지녔던 급진적 슬로건과 과격한 투쟁 방식의 물리적 관성은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간극이 존재했고, 시간을 필요로 했다. 이데올로기적 각성과 실천 기구를 통한 행동이 역사적 시간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아직은 먼 길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은 전대협에 이르러 완수된다. 따라서 전대협의 맹아, 혹은 새로운 대중운동으로의 출발을 깨닫게 해준 반성의 원점 제공자로서의 애학투련을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리가 필요하다. 전사(前史)로서 기억하기 위한 정리인 셈이다.

첫째, 애학투련은 학생운동 세력이 대중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자각과 함께 이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했다. 이 같은 대중 노선은 이제 학생운동이 더 이상 지하 써클과 '팀방'이라는 닫힌 장소 안에서 폐쇄성과 이념비약의 구호생산자가 아니라 국민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열린 공간에서 시대정신과 만나게 하는 실천자로서의 자아를 정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당시의 모순구조 하에서 군부독재의 연장을 막는 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시급한 시대적 임무라고 자각한 이상 이를 실현시킬 방도로서 민주대연합이 유일하다는 결론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세 인식과 정치 노선 및 조직 노선의 대전환은 당시 남한 운동 역량의 최대 세력이었던 학생운동 진영이 1987년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월 민주대혁명의 종착역을 향한 플랫폼에 올라서는 것을 의미했다. 비록 1986년 늦가을 애학투련의 건대항쟁이 군사정권에 처절하게 짓밟히며 마감되었지만,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과정에서 모범적 대중투쟁을 선도할 학생 대오의 대중 섬김의 기제가 예비되고 있었다.

둘째, 애학투련의 건설 과정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민주적 조직 건설의 경로를 실천했다는 점이다. 저간의 학생운동 사업 작풍(作風)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주적 조직 건설의 모범을 시도함으로써, 비록 그들의 항쟁이 '공산혁명분자의 건국대 폭력점거난동사건'으로 낙인찍은 군부독재와 보수언론에 의해 왜곡보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학생운동 진영이 대중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한 반성과 계승의 동기로 건대항쟁이 작동했다는 사실이다. 애학투련은 조직 건설에 있어 서울, 경기지역을 4개(동, 서, 남, 북) 지부로 나누어 지부별 연합조직을 우선 건설하고, 이후 최종지도부를 결성하는 민주적 절차를 확보했다. 이 같은 조직 노선의 실천은 민주대연합에 참여하는 정치적 대중 노선과 함께 이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중조직 건설의 파종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 사업 작풍이 대중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루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의 정치적 투쟁 중심에서 학생회원(일반 학우) 모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일상적 생활운동을 병행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총학생회가 학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학교별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건설해나갔다.

셋째, 학생운동 진영의 변화는 대중 운동을 올바로 전개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품성론'과 '사상 운동'을 펼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같은

품성론과 사상 운동은 비밀 활동가 그룹과 대중 운동가 그룹의 기념비적 협력을 이루면서 대중적 정서와 대중 속에서 훈련된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체계적으로 재생산하는 양성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기념비적 협력이란 과거의 비밀 활동가 조직의 오픈 기구(총학생회)에 대한 지시와 집행의 관행이 끝난 것을 의미했다. 이제 실천 대오의 운동 역량이 대중에 의해 선택되고 대중적 지도력을 갖춘 학생지도부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이 과정은 87년의 서대협과 전대협 출범의 근간으로 승화되기에 이른다. 대중 속에서 훈련되고 대중과 함께하는 학생대표, 그들이 생산되었기에 신화의 구성은 독재와 독재에 항거하는 사회의 자기보호 운동, 그리고 자기보호운동을 조율하고 적을 파괴하는 지도자가 출현하게 되면서 신화의 서막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애학투련은 이후의 학생운동을 대중 노선과 민주대연합전선으로 진출시키는 기원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권 중심 활동가들이 자신들 스스로를 대중운동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선언만으로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마지막 희생자였다. 인식의 지평 안에서 실천 행동이 자각의 길항자(antagonist)가 되어버린 모순자들의 슬픔, 애학투련이 역사의 슬픈 기록으로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나아가 애학투련은 서대협과 전대협의 길항자였다. 여기서 길항자의 의미는 애학투련이 서대협과 전대협이라는 수용체(receptor)의 건설 과정에 길항적으로 작용했지만, 그 자신은 그 수용체인 서대협과 전대협을 통한 어떤 작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서대협과 전대협은 애학투련의 인식 지평에서 시작했으나 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로지 서대협과 전대협만의 대중 토양에서 잉태되고 자라났다. 물론, 이 같은 대중 노선의 승리가 학생운동 진영의 자각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었다. 서대협의 건설 과정에서 살펴보겠지만, 대중 노선과 대중운동의 승리는 대중이 시대정신을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분출되는 에너지와 마주하는 순간에 역사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3. 서대협 건설의 역사성: 서대협이 있었기에 전대협이 있을 수 있었다

애학투련 이후의 학생운동은 문화의 변화를 추구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학생운동의 실천 기구가 투쟁위원회 중심에서 총학생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룬 것이다. 대중투쟁이 전 캠퍼스에 물결쳤다. 이른바 민주화운동의 대중운동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학생운동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투쟁위원회는 비합법 학생조직의 실천 기구가 아닌 총학생회 산하 민주화투쟁의 대중적 지위에 배속되었다.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조직 형태로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부독재에게 '공산혁명분자의 건국대 폭력점거난동사건'과 같은 낙인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었다. 대중 노선으로 민주화운동의 향도를 정하면서 선전선동의 슬로건도 대중적 이해와 실천에 맞닿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대중운동 노선은 궁극적으로 정당·재야·시민사회·학생운동 세력 등 민주 진영 모두를 민주대연합과 같은 국민전선의 건설을 목

표로 하는 바, 군부독재와 투쟁전선을 민주 대 반민주의 판갈이 전선을 형성할 때 승리의 경로가 마련된다. 이렇게 시작된 민주대연합은 국민에게 알릴 슬로건의 통일이 급선무였다. 당시 신민당을 중심으로 '직선제 개헌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 등의 구호를 주장했다. 초기에는 이에 대해 학생운동 진영은 개량적이고 근본적인 모순해결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선입견으로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이 땅의 애국투쟁의 진정한 주인은 애국민임을 자각하고 애국민에게 근거하고 애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애학투련의 발족 선언에서와 같은 정치 노선의 대전환은 국민 대중과 함께하는 슬로건으로서 "직선제 쟁취"라는 슬로건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투쟁 방식 역시 점거 농성, 화염병 투척과 같은 선도 투쟁과 폭력 투쟁에서 비폭력 평화 투쟁으로의 전환이 확산되어갔다.

1986년을 돌아보건데 당시 학생운동 진영에는 이른바 자주화의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 1985년 4월 전국 30여 개 대학에 출범시켰던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삼민투쟁위원회'(이하 삼민투)의 민족, 민중, 민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비합법, 반합법 선도 투쟁을 견지해 오던 학생운동 진영이 민족문제를 자주화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당시의 이념 지형과 정치 노선의 전환은 대한민국의 대미 종속성에 대한 인식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작은 서울대의 '구국학생연맹'(이하 구학련, 1986년 3월 조직)이라는 비밀결사 조직에서 비롯되었다. 구학련은 산하 행동기구로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이하 자민투, 1986년 4월)를 발족시키면서 활동의 폭을 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장해갔다. 물론 이 같은 정치 노선의 생성이 학생운동권 전체의 하나 된 흐름은 아니었다. 그때까지 학생운동의 다수 진영은 '반제 반파쇼 민족민주 투쟁위원회'(이하 민민투, 1986년 4월)를 각 캠퍼스에 발족시켰으며, 같은 해 4월 민민투의 연합조직으로 '전국 반제 반파쇼 민족 민주 학생연맹'(약칭 전민학련 또는 민민학련)을 출범시키면서 자신들이 1985년 결성된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과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의 계승자임을 자처했다. 양 진영(자민투와 민민투)의 위세는 초기 민민투가 우세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민투의 확장세가 전국적인 우위를 점해갔다. 자민투의 세력이 확산되자 구학련의 지도부가 전민학련과의 조직 통일 작업에 착수했다. 이 논의에서 애학투련의 결성이 결정되었고 비로소 1986년 10월 28일 건대에서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구학련-자민투라는 (지도-실천 단위의) 조직 형태는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지로 확장되어갔다. 고려대의 '애국학생회', 연세대의 '반미구국동맹', 한양대의 '민주학생회' 등이 애학투련 투쟁을 전후하여 결성되었고, 그 산하의 '투쟁위원회'의 실천 기구가 상응하여 학교별 다른 명칭으로 발족되었다. 물론, 건대항쟁에 대한 반성이 학생운동 진영 전체의 노선 통일을 기하지는 못했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건대항쟁을 전후로 학생운동 진영의 정치 노선에 뚜렷한 갈등이 표면화 된다. 이른바 NLPDR(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론)과 CA(Constituent Assembly, 제헌의회) 논쟁이다. 자민투 대 민민투 논쟁을 넘어서는 이 노선 갈등은 이후 서대협과 전대협의 건설 과정은 물론, 1987년 12월 대선 국면에 이르기까지 지난한 갈등 과정을 거

치면서 때로는 학생운동권 내부에 상처를 입혔음은 물론, 때로는 일반 학우들로부터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다. 양 진영은 자신들의 정치 노선의 관철과 선전선동을 위해 1986년 겨울에 전개된 총학생회 진출에 사활을 걸었다. 결과는 이른바 NL 그룹의 학생운동 진영이 총학생회의 다수를 확보하는 다수 진영이 되었다. CA 그룹은 삼민투와 전학련의 적통 주장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진출에서는 소수로 전락했다.[5)]

1986년 겨울, 학생운동 진영은 그해 가을 발생한 건대항쟁의 시련을 딛고 애학투련의 정치 노선과 대중 노선의 계승과 혁신은 물론, 폭력·과격 투쟁에 대한 반성으로 겨울을 보내야 했다. 사회적 파장과 학생운동 내의 파문이 적지 않았던 건대항쟁은 군부독재의 의도와는 달리, '일거에 섬멸'되기보다는 역설적이게도 한층 강화되고 더욱 튼튼해진 운동 역량을 선사받는다. 앞서 밝힌 바대로 대중운동으로의 대전환은 일반 학우들이 주인이 되는 총학생회 강화를 의미했고, 학생운동 진영 대부분이 총학생회 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물론, 민주화운동의 관점에서 총학생회를 완전한 대중조직으로 건설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민주화의 과업을 숙제로 직면하고 있었고 이 시대적 요구가 대학 캠퍼스에도 그대로 존재했다. 따라서 대중조직을 통한 민주화 사업의 전개는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절차와 과정은 구성원들과 함께 해나가야 하는 것이

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한국민주화운동사』3. 돌베개. 267-273을 참조하여 필자의 기억과 당시의 활동가들의 구술을 재구성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었기에 기꺼이 시간을 투자했다. 당시 각 대학의 대중적 총학생회 건설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일은 일반 학우들의 기존의 학생운동권에 대한 선입견과 불신이었다. 이 같은 불신은 군부독재가 생산해 낸 상징조작을 언론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 지면(화면)으로 옮겨 놓은 이유가 컸다. '과격하고, 불법적이며, 음성 써클 조직으로 북한과도 연계된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낙인 효과가 일반 학우들의 뇌리에 잠영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운동 진영의 그간의 사업 작풍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 학우들의 사고에 내재한 학생운동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는 일이 일차적 과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정치적 대중 집회의 형식을 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마당극, 길놀이와 같은 문화제 등을 통해 일반 학우들의 접근성을 쉽게 했다. 또한 지역 내 대학별 연합 형태의 문화제, 대동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대표적으로 1987년 6월 6일, 서울지역 청년학생 대동문화제)를 기획해 일반 학우들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 같은 행사의 일환으로 각 대학들의 총학생회 출범식에 다른 지역의 총학생회 간부들을 초청하는 기획안이 마련된다. 1987년 3월 서울시립대의 총학생회 출범식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학우들(약 2,000여 명)과 타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모였다. 그리고 이 집회에서 서울시립대의 단과대별 학우들의 깃발과 주장이 만장으로 휘날리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이때부터 각 대학의 대중 집회나 축제 현장에 깃발과 만장이 등장했고, 이는 1980년대 젊은 대학생들의 정체성과 주장을 슬기롭게 표현하는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아갔다.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정치

▲ 1987년, 5월 한양대 대동제(축제)의 개사곡 경연대회의 한 장면
자료: 필자 소장

행사가 아닌 문화 행사를 강조하며 경찰의 불법 검문과 학내 진입을 막아내고 학내 자유를 쟁취해갔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문화제와 같은 탈정치화된 형식의 참여 마당에 들어온 일반 학우들이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욕구가 군부독재에 의해 점령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민주화투쟁에 기꺼이 나서는 과정을 연출한다. 이 같은 자발적 민주화투쟁의 상황을 처음 목도한 총학생회 간부들(전직 운동권)은 시대정신과 마주한 대중의 혁명적 변화라는 역사적 사건 앞에서, 간혹 대중들의 선각적 정치 행동의 뒷수습에 급급하기까지 했다. 대중사업을 통한 정치 사업은 대중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론장을 마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현상이었다. 이 공론의 장 속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미 민주화투쟁의 장(場)에 서 있는 자아를 발견한다는 사실이었다. 사회의 자기보호가 작동하는 역사적 현장이었다. 그것도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의 사회 보호 행동은 진취적이고 거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대학별 집회와 지구별 문화제,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의 품앗이 집회 참여는 일반 학우들은 물론, 총학생회장들의 동료 의식(peer group feeling)과 연대 의식(conscience solidaire)을 높여갔다.

1987년 4월을 전후해 당시의 군부독재정권의 정권 연장 기도가 폭압적 수준으로 비약한다. 급기야 4월 13일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고 군사독재정권 연장, 유지를 위해 호헌 조치를 단행한다. 당시의 개헌 투쟁은 1986년 2·12 총선 이후 전개되어 당시 야당인 신민당 주도의 '1000만 개헌 서명운동을 위한 범국민대회'로 확산하면서 재야를 비롯한 종교계와 영화인, 문화인 등이 결합하여 민주대연합 형태의 국민전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었다. 민주화 요구가 군부독재에 의해 가로막힌 상황에서 국민전선의 출현은 대학 캠퍼스의 역동성(학생운동 역량)을 곧바로 국민전선의 선도 역량 지위를 안겨 주었다. 학생들은 어느새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화운동의 전선에 동지로 서 있었다.

민주화운동의 국민적 기운이 반도를 휘감는 즈음, 학생 전체의 민주화투쟁을 선도해갈 대중적 연대조직을 건설하는 일이 학생운동 진영의 과제로 떠올랐다. 국민전선의 현장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더욱 강력한 학생운동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국민적 민주화 요구와 자발적

인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학생조직, 그것이 서울지역에서 5월 8일 발족한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다. 1987년 5월 8일, 연세대학교 광장에서 서대협이 역사적 진군을 시작한다. 서대협은 이후 6월 국민 대항쟁의 가장 선봉적인, 가장 강력한 대중 대오를 이끌고 역사적 승리에 헌신한다. 연대 조직의 필요성과 당위는 이미 총학생회장들을 비롯한 일반 학우들 전체의 정서가 되어 있었다. 군부독재 종식을 위한 호헌철폐 투쟁의 당위성을 청년학생 전체의 이름으로 전개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다. 그리고 거리의 현장 투쟁에는 지도부가 필요했고, 지도부의 투쟁 전술 여하가 군부독재의 위력을 무릎 꿇게 하는 기제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투쟁위원회의 이른바 '오다'(order)를 접수한 일부 운동권만의 투쟁이 아닌, 국민과 함께 반도의 거리에서 총궐기를 조직하는 지도부가 필요했던 것이다.

서대협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자. 6월항쟁의 역사적 대 전진을 위한 조직화된 운동 역량의 건설 과정은 다층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때까지 학생운동 진영은 완벽한 대중운동조직체로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노선상의 갈등, 이른바 NL과 CA의 갈등도 여전히 존재했다. 연대사업의 필요는 당시까지 학교별 대외 연락선을 맡았던 사람들이 '임시대표자회의'(이하 임대)라는 이름으로 회의체를 이어갔다. 이 테이블에 의해 정치 노선과 사업 방향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각 대학별 총학생회 출범식 참여나 연대 문화 사업의 개최 등이 이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총학생회장들에게 보고되는 체계를 이뤘다. 이들 임대들은 서대협 결성 이후 서대협 사무국이나 각 대학의 총학생회 집행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전속되었다. 또 다른 하나, 민주화투쟁을 전담하는 각 학교별 투쟁위원회는 연대사업의 파괴력과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절히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호헌철폐와 민주쟁취를 위한 서울지역학생협의회'(이하 서학협)을 구성하고 정치투쟁과 타 부문과의 연대투쟁을 테이블에 올렸다. 끝으로 연대사업 및 지구별 문화제 등을 통해 동지 의식(peer group feeling)과 연대 의식(conscience solidaire)을 높여갔던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에서 임대와 서학협의 결정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에서는 서울지역을 동, 서, 남, 북의 지구로 4분할하여 각 지구를 책임지고 대표하는 캠퍼스를 정했다. 특기할 것은 그때까지 동부지구의 대표 캠퍼스를 맡아오던 고려대가 북부지구로 거점을 옮긴 사실이다. 이는 조직 역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북부지구의 주축을 이루었던 성균관대가 CA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던 바, NL 계열 중심의 서대협 건설의 학생운동 진영에서 북부지구를 CA 노선의 성균관대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북부지구의 중심거점이 될 대학 캠퍼스를 결정하는 고민 끝에 고려대가 북부지구로 지구거점을 옮기고, 한양대가 동부지구의 대표를 맡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남부지구는 서울대가, 서부지구는 연세대가 맡았으며, 이들 대학의 총학생회장이었던 이인영(고려대, 북부지구), 이남주(서울대, 남부지구), 우상호(연세대, 서부지구), 김병식(한양대, 동부지구) 총학생회장들이 대표를 맡았다. 이로써 그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심의 학생운동 진영에 한양대가 새로이 중심축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6] 그리고 이들 4개 캠퍼스의 총학생회장과, 임대, 서학협 등이 합동 테이블을 열고 4·13 호헌 폭

거에 대항하는 학생 지도부격인 대학생 연합조직의 건설에 지혜를 모아갔다. 그리고 이 글 전반에 걸쳐 서술된 바, 비밀주의적·비민주적 운영과 선도적 입장과 과격한 수단 사용으로 대중들과 분리되었던 과거 학생운동의 반성을 종합하여 그 수준을 학생연합체가 아닌 대표자협의체 수준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지역 대학생 연대조직으로서 '서울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조직의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두기로 하고 그 산하에 4개의 지구별 대표자를 두는 안이 확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지난한 협의를 거치면서 서대협 결성을 위한 기획안이 마련되었다. 임대와 서학협 준비 단위 및 4개 지구 총학생회장의 연대 테이블에서 논의된 기획안은 각 대학과 지구별 대표자협의회를 발족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준의 절차를 거쳐갔다. 민주적 조직 건설의 과정을 밟은 것이다. 5월 8일 연세대에서 서대협 발족식이 있었다. 서울 소재 대학 23개 중 18개 대학이 참석했다. 당시 불참 대학은 정치 노선이 다른 학교와 비운동권 총학생회장이 있는 곳이었다. 발족식에서 이인영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이남주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서대협의 출범은 그 시작부터 호헌 철폐를 위한 국민전선에의 참여에 있었으므로 이른바 민주대연합 구성을 위한 부문(정당, 종교, 제

6) 이후 한양대 운동 역량은 전대협 6기까지의 활동에서 의장 2명을 배출하는 기염을 토한다. 전대협은 6기까지 총 6명의 의장을 배출했는데, 이 중 고려대 2명(이인영 1기, 우영식 2기), 한양대 2명(임종석 3기, 김종식 5기), 전남대 1명(송갑석 4기), 서울대 1명(태재준 6기) 등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야, 기층 노동자와 농민 등) 간 연대사업을 위한 실무기구를 비롯하여 서대협 자체사업을 위한 사무단위의 필요와 정책 및 편집사무에 필요한 연대사업국, 사무국, 정책국, 편집국 등의 기구구성을 마쳤다. 끝으로 서대협의 이름으로 정치투쟁을 전담할 기구로 서학협을 서대협의 산하 특별기구로 위상 지웠다. 집회에서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슬로건이 채택되었다. 1986년 가을부터 이어져온 대중 사업이 전 국민적 민주화투쟁의 질풍노도 속에서 하나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4. '국본'에 참여하지 못한 서대협, 그래서 전대협 신화의 출발점이 된 서대협

대중 노선을 대외에 천명하고, 민주 대연합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복무에도 불구하고 서대협은 1987년 5월 27일 발족하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에 대해 "1987년 5월 27일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조치 철회와 대통령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운동권,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사회운동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은 분명 오류다. 그러나 이 기술은 사실(事實)로서는 오류이나 사실(史實)로서는 참이다.[7] 당시 국본은 '민주헌법쟁취 범국민 1천만 서명운동'을 주도해온 야당인 신민당과 재야와 종

교계를 비롯한 시민 세력, 그리고 이들을 바탕으로 국민 대오의 성격을 지녔다. 당시 국본과의 연대사업을 담당했던 서대협 연대사업국장 김성환(연세대, 현 노원구청장)과 정책국장을 맡았던 신채호(연세대, 현 국회보좌진)의 기억에 따르면 서대협의 국본 참여를 반대한 그룹은 신민당 내의 YS계였다. 당시 국본에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그룹이 참여했는데 YS 진영에서 보기에 이들 재야는 친DJ였다. 그런데 학생운동 세력까지 국본에 들어오면 이들 역시 친DJ 세력의 확대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이다. 반대의 명분은 학생운동 세력의 과격성으로 인해 국본의 평화적 집회와 국민적 대오의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논지였다. 결국 서대협은 국본의 조직구성원이 되는 데 실패한다. 그러나 서대협은 국본의 6월항쟁 국민 총궐기의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행동 지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여 거리로 나온 국민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국본은 6월 10일 국민 총궐기 이후 별다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6월 18일 '최류탄 추방 대행진'과 같은 행사는 서대협의 제안으로 국본이 뒤늦게 참여하여 국본의 행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국민 대오의 형성을 위한 서대협의 전과는 6월 26일 '국민 평화 대행진'에 민추협을 비롯한 김영삼, 김대중 등 신민당과 종교계 등이 총 망라되어 참여하는 기염을 연출한다. 무엇보다도 직선제 개헌과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자발적 시민 대오가 만들어지면서

7) 『1987년 6월항쟁 사료집: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에도 같은 취지로 기술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6월 29일,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직선제 수용'의 역사적인 항복 선언을 얻어내기에 이른다.[8)]

서대협의 국본 참여를 통한 민주대연합 전술은 6월항쟁을 승리로 이끄는 주요 동력이었다고 평가받는다. 그와 같은 평가가 『한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나 6월항쟁사의 기록에서 학생운동권의 국본 참여를 기정사실로 오인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6월항쟁을 마치고 돌아온 대학 캠퍼스에는 6월항쟁 과정에서의 일화나 특정 학생지도부에 대한 영웅담이 회자되고 있었다. 5월 23일 종로에서의 연와투쟁이나, '페퍼포그' 위로 올라간 학생지도부, 6월 10일 신세계와 퇴계로에서의 무장해제 투쟁, 명동성당에서의 시민과의 연대투쟁 등이 대학가 술집 골목의 주요 대화거리였다. 6월항쟁의 대성공을 위해 서대협 지도부는 중간고사 시험거부투쟁을 주도했으며,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의 삭발투쟁과 단식, 혈서 등을 통하여 투쟁의 열기를 고양시켜갔다. 그러나 국민 총궐기가 단행된 6월 10일부터는 학생운동권보다 일반 학우들의 투쟁 열기와 결기가 지도부를 훨씬 앞섰다. 많은 학생 지도부들이 처음 펼쳐지는 장관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6월항쟁이 승리의 역사로 장식된 반도의 여름, 이미 서대협은 그 승리를 지도한 신화로 회자되고 있었다. 서대협이라

8) 6월항쟁에 대한 평가는 그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등을 통하여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학술적 평가를 비롯하여 30년의 괴정 속에 구술과 학술세미나,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일이 진행되어왔다. 이 글에서는 6월항쟁에 대한 평가가 아닌, 당시 서대협의 6월항쟁과 국본과의 관계, 즉 민주대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국민전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의 서대협 역할에 착목한다.

는 이름 안에서 일반 학우와 총학생회는 구분 없이 민주화 투사였다. 일반 학우와 함께 투쟁한 서대협,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군 서대협이 되어 있었다. 서대협은 6월항쟁을 승리로 일구고 내달음 쳐 그해 8월 19일 전대협을 탄생시키는 주 임무를 수행해갔다. 이인영 서대협 의장의 구속으로 서대협 투쟁을 이끌던 우상호(국회의원,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대협의 건설과 관련, "승리 이후 전국적 학생연대 조직을 건설한 사례는 대내외의 학생운동사적 사실로 비추어 전대협이 전대미문의 첫 기록"이라 평가했다.

서대협이 일반 학우들의 지도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투쟁의 전략전술을 일반 학우들, 나아가 일반 국민들의 수준에서 지도했다는 것에 있다. 그간 학생운동 진영이 보여왔던 정치투쟁 일변도의 선도투쟁이 아닌, 국민 대오의 형성에 철저히 복무하는 민주 대연합 전선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본에 조직적 참여를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본과 함께 국민 총궐기의 대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행동 통일을 이룬 것은 그간의 학생운동권의 행동 궤적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대연합 노선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수준의 목표를 함께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연합 노선은 희생을 전제로 한다. 나를 관철하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최상명 2015). 이것이 진정한 민주대연합 노선의 가치이고 이 가치가 오롯이 발현될 때 대연합 노선은 승리를 국민 대오에 안긴다. 서대협은 시대의 모순과 당면한 투쟁 방향에 대해 직시했고, 정확한 전략전술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방향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나아갔다. 국본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었을지라도 국민과 일반 학우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앞선 희생을 단행했다. 그렇게 일반 학우들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서대협의 지도부가 각인되었다. 민주화투쟁 승리의 다른 이름 전대협, 전대협 건설의 역사적 책무가 서대협의 투쟁과 함께 반도의 청년들 마음속에 이미 묻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서대협은 전대협 신화의 조건을 마련해갔다.

5. 전대협, 학생운동의 역사에 신화로 서다.

1987년 전대협 출범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 전날의 총학생회장들의 모임에서다. 서대협 소속 총학생회장단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6월항쟁 투쟁을 모범적으로 수행해온 총학생회장들이 최루탄에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연세대로 모여들었다. 이 때 참석한 전국의 총학생회장들의 숫자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이가 없다. 단지 서대협의 서울지역 총학생회장 대부분을 비롯하여 호남지역대학생연합건설준비위원회 건준위(광주·전남), 충청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충청지역), 대구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대구지역), 전북지역학생협의회(전북지역), 부산지역총학생회 협의회(부산), 인천지역대학생협의회(인천지역) 등등의 대표들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전국적 단위의 학생연대조직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

다. 5월 8일 서대협의 출범 이후 서대협의 건설 모범을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움직임은 지구 단위로 확산되고 있었다. 5월 15일 호남학련, 6월 1일 부산지역총학생회 협의회, 6월 25일 전북지역학생협의회 등이 속속 결성되어갔다. 물론, 서대협과 지방의 결속 대오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했으나 6월항쟁의 과정 속에서 단련되며 결속을 이어갔다. 일부 지역은 전대협 출범 이후 건설되기도 했으나 전국적으로 속속 지구대협의 출범이 진행되었다. 결국 전국단위의 네트워크를 이루려는 노력은 전국의 18개 지구 대표자협의회(이사 지구대협)를 구성하기에 이른다. '18개 지구 대표자협의회'로 명명된 이 회의체는 총학생회장단 모임과 서대협 건설 과정에서의 '임대'(임시 연락대표, 주로 학생운동 활동가들이 맡았다)와 같은 성격의 '활동가 모임'의 이중적 형태를 띠었다. 18개 지구대협의 구성을 이중적으로 갖춘 이유는 학생운동 진영이 총학생회에 진출하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했고, 총학생회장들의 운신 폭과 기동력의 한계로 인해 활동가들인 임시 연락대표들이 좀 더 쉽게 모여 회의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주된 이유였다. 후일,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18개 지구대협 대표들은 8월 19일 전대협의 건설로 전이되었고, 활동가 중심의 지구대협 테이블 멤버들은 전대협 산하 '연락사무국'으로 전속되어 활동하게 된다. 18개 지구대협 테이블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전국 단위의 통일 대오를 형성하고 하나의 목소리로 투쟁하는 조직의 건설은 서울과 지방의 운동 역량 격차를 해소함은 물론, 전국적 단위의 연대투쟁을 효율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모여갔다.

1980년대 전국적 단위의 학생운동조직을 만들려는 노력은 부단히 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행되어왔다. 전국단위의 학생운동 대오 건설은 학생운동 진영의 일관된 바램이었다. 1984년 '전국대학생대표기구회의', 1985년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1986년 '전학련건준위' 등이 그 노력의 결과물들이다. 그러나 그간의 학생운동조직은 운동권 학생들 일부가 비밀리에 모여 전국 단위의 학생운동조직을 선포하고 이내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불법이적단체로 낙인 받고 수배령이 떨어지면서 정작 발족 이후에는 아무런 학생활동을 하지 못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전대협의 발족 과정은 이전의 조직과는 건설 경로부터 다른 것이었다. 서대협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구대협은 조직 건설부터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 대중 노선으로의 향도 전환과 총학생회 진출, 문화사업을 통한 사업 전개는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확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월항쟁을 통한 민주주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운동권과 일반 학우의 벽이 사라졌다. 그들이 거리에서 함께 형성했던 스크럼 속에서 용해되어 하나가 된 것이다.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총학생회와 서대협을 비롯한 전국의 18개 지구대협은 학생 전체의 대표 조직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이한열의 장례 전야의 회의는 차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완벽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18개 지구대협 협의회에 전국적 학생연대조직 결성의 논의를 일임하는 결의를 하게 된다. 전대협 결성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7월 8일, 장례식 전야의 회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한열 열사가 살아남은 학우들에게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오롯이 실천할 전국의 백만학도를 하나로 묶어세우라는 유언 명령을 내린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전대협 건설 논의가 급물살

을 탈 수 있었던 것은 6월항쟁의 승리를 일군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6월 승리를 몰아 반도의 근본적인 모순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의 정치투쟁 지도부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절박감에서 비롯되었다. 전대협 건설의 잰걸음이 시작되었다. 이한열 열사 장례 전날의 회의에서 전국적 학생연대조직 건설의 실무 기획을 위임받은 18개 지구대협 협의체가 전대협의 발족을 위해 역사적 기획을 단행했다. 수차례의 회의를 거친 후 전국적 학생연대조직의 발족 시기와 장소, 그리고 당일의 프로그램과 사전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출범식이 8월 19일로 정해졌다. 장소는 대전에 위치한 충남대학교였다. 가장 힘들었던 주제는 전국적 학생연대조직의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전학련', '전학련 건준위', 그리고 '전대협' 등을 테이블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가던 중 당시까지의 학생조직의 결속의 수준과 정치의식 등을 고려해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전대협)로 정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를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결정했다.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전대협' 출범을 만천하에 알리고, 조국통일의 염원을 담아 국토순례를 통해 충남대에 집결하는 퍼포먼스가 제안되었다. '통일 대장정'의 이름 아래 전국의 총학생회 회원들이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깃발을 앞세우고 장정을 시작했다. 8월 17일 오후 7시 대전 충남대에서 전대협 창립총회가 열렸다. 그러나 총회는 전대협의 역사적 탄생을 알리려는 지도부의 의중과는 달리 새로운 장애에 봉착한다. 서대협 건설의 기록에서 보듯, 전대협의 구성 주체들 역시 운동사로 볼 때 NL(민족해방) 계열의 총학생회가 대부분이었다. 문제의 발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은 전대협 창립총회 직전, 지구대협별 총회에서 시작되었다. 창립총회 당일 그동안 전대협 결성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CA(제헌의회) 그룹의 성균관대 총학생회가 가입 신청을 했다. 가입 승인 가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지만 전대협은 특정 정파의 조직이 아니어야 하고, 또 대승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날 성균관대의 가입은 CA 그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이들은 전대협을 '기회주의자들의 소굴'로 진단하고 전대협 조직 건설 현장에 파고 들어가 선전선동을 통해 CA 노선으로의 장악을 시도하자는 것이었다. 전대협 총회가 개최되고 지루하고 답답한 정치토론이 이어지던 중, 지도부부터 구성하자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지도부 선출 투표에 들어갔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인영과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이봉원이 입후보했다. 그림 상으로는 NL과 CA의 대결이었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압도적인 이인영 승리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우상호(연세대), 김승남(전남대), 김종삼(부산대), 윤재영(충남대) 총학생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의장단 선출이 끝났음에도 CA(제헌의회) 그룹 학생들은 전대협의 사업방향 토론을 통해 연이은 NL 노선의 비판과 CA 노선의 당위성을 토로했다. 새벽 5시, 회의를 끝내지 못하고 정회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것으로 혼란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충남대 곳곳에서 CA그룹 학생들과 정치토론을 하던 중 양쪽의 감정이 폭발하여 일부 학생들이 유리창을 부수고, 서로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8월 19일, 전대협 출범의 날이 밝았다. 전국의 백만학도를 대표해 모인 5,000여 명 학생들의 결기와 조국 통일의 여망을 담아 한 마음으로 출범해야 할 그

날, 그러나 출범식도 순탄치 않았다. 전대협 초대 의장 이인영의 전대협 사업방향에 관한 설명 도중에 CA 그룹 학생 한 명이 연단으로 올라와 발언권을 요구하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이 학생은 20분의 연설을 마치고 내려갔다. 돌이켜보건데 1987년, 이들(CA 그룹)의 연단 점거는 집회 때마다 있었던 일상이 되었었다. 총학생회 진출에서 소수에 머물면서 정치적 선전선동의 장을 잃어버린 결과였다. 그날, 전대협의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해주러 오신 백기완 선생과 김재훈 선생(김세진 열사 부친)의 당부는 그래도 단결하라는 메시지였다. 그렇게 1987년 8월 18일과 8월 19일의 지난한 1박 2일이 흘러갔다. '신화'의 출범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장면들이었다. 그럼에도 반대의 의견에 기회를 주고, 민주적 절차를 비교적 잘 지켜낸 전대협은 학생운동 진영의 정치투쟁의 노선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학생대표자조직으로의 위상을 역사 속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대표성의 확보는 이후의 전대협 후배들의 통합노력이 거듭되면서 마침내 하나의 노선,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전대협이 완수되어갔다.[9)]

발족 선언문에서 전대협은 외세 배격과 독재 종식을 통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할 것,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향해 연대할 것, 신성한 학원의 진정한 자율과 자유를 되찾을 것, 전국학생총연합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것 등을 다짐했다. 그때 그들이 본, 그들이 해결해야 할 한반도 모순의 해결 과

9) 우상호 외. 1994. 『불패의 신화』. 서울: 두리출판사. 56-60 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제였다. 1986년 가을, 애학투련의 시련을 딛고 대중운동으로의 향도 전환을 이룬 지 10개월, 민주대연합의 국민적 궐기의 현장에서 6월항쟁의 승리를 일구고, 학우들과 운동권의 벽이 시대정신의 민주화투쟁 속에서 사라졌던 그날, 1987년 8월 19일, 전대협이 민주화의 역사 속에, 학생운동사의 신화 앞에 그렇게 우뚝 섰다. 반도의 청년들, 95개 대학 5,000여 명의 학생들이 충남대에서 전대협의 진군을 알렸다. 우리는 그날의 출범이 '불패의 신화'의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 알게 되었다.

기억의 장면들을 꺼내어 전대협의 결성까지를 추적해보았다. 3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1987년의 격동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로 남았을까? 전대협이 신화인 이유는 학생운동 진영의 대중 노선으로의 전환에서만 찾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화는 조건을 필요로 한다. 1987년 군부독재라는 국가적 폭압기구가 파시즘적 광란의 역사를 쓰려할 때,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자기보호, 이른바 이중운동(Karl Polanyi 1944)이 작동했다. 대중들이 시대정신으로 무장되고 혁명적 에너지를 폭발하는 이행 국면 속에서 신화 생성의 조건이 마련된다. 그 조건이 마련되던 1987년 6월의 시기에 전대협 건설 주체들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신화의 조건이 제시하는 길을 갔다. 그 결과 자신들의 역량보다 늘 더 큰 승리를 일궜다. 패배할지도 모르는 싸움에서도 이제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투쟁을 전개하며 승리했다. 그렇게 전대협은 늘 승리하는 싸움을 했다. 그래서 전대협은 '불패의 신화'가 될 수 있었다. 대중이 시대정신과 만나 혁명적 에너지를 발산시킬 때 전대협은 그

▲ 조국 통일 대장정을 마치고 충남대로 전대협 출범을 위해 모여드는 학생들 사진
자료: archives.kdemo.or.kr

들을 섬기고 보조했다. 그 섬김이 대중들에게 모범과 신화로 회자되었다. 신화를 회자하는 전국대학생들이 전대협의 정체성 속에 함께 살아왔다. 신화를 만들고, 신화의 정체성이 이어지면서 신화가 전설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6. 일그러진 정치적 상징 자본(symbolic capital)과 전대협이라는 독사(doxa)[10)]

전대협 조직은 대학생 조직이라는 태생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지도부가 해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전대협의 신화는 1기에서 6기에 이르기까지 반도가 처한 모순 구조를 혁파하는 시대의 개척자로 투쟁하면서 강고해져갔다. 6월 시민혁명의 민주화 대장정에서, 반공 국시의 파시즘적 위협을 뚫고 통일 운동의 기운을 반도 전체에 물결치면서, 군부독재 전두환·노태우 단죄 투쟁에서, 다시금 스멀스멀 기어올랐던 권위주의와의 단절 투쟁에서, 사회 구석구석 스며든 차별과 인권투쟁의 현장에서 전대협은 기수를 달리하며 신화의 스토리텔링을 생산해갔다.

전대협의 신화가 민주주의에서 통일과 노동, 역사적 단죄로 이어지는 과정에 선배 기수들은 징역살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했다. 그리고 전대협 활동가들은 투신의 새 장을 열었다. 학생운동 후 노동운동이나 기층조직으로의 투신이 정형화되었던 기존의 운동관습과 단절하고, 정치·

10) 독사(doxa)는 고대 그리스 말에 어원을 둔 것으로 '공통된 신념', 또는 '대중적 견해'로 풀이된다. 보통 사전에서는 '공론'이나 '억견'으로 번역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쓰는 독사(doxa)의 개념은 사회학자 브르디외(Brourdieu)와 이영자의 주장에서 차용한 것으로 '거짓된 자연의 자연화'와 같이 거짓 자연, 혹은 믿고 싶은 자연을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처럼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자신들에게 이롭게 작용토록 하는 '숨겨진 설득'이라는 의미다(이영자 2015, 8, 46 참고).

문화·사회·학계 등 여러 방면으로의 진출을 꾀했다. 전대협의 사회 투신이 전개되면서부터 이후의 전대협 30년을 지탱해온 구심은 정치영역에서의 다이나믹스였다. 전대협 활동가들은 투신 운동의 전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으로 진출하여 대중들 속에서 전대협 정신을 뿌리 내리려는 기획을 단행했다. 바로 '애국적 사회진출'이다. 그중 정치영역은 이른바 불루오션이었다.

전대협 출신 활동가들은 다양한 청년층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수렴하고 훈련받는 경로를 열어갔다. 기존의 '민청련'과는 사뭇 다른 '나라사랑 청년회'(1988년), '청년정보문화센터'(1994)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조응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1984년 창립된 '노래를 찾는 사람들'(약칭 노찾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89년 발매된 2집 앨범부터 전대협 세대의 색채를 드러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라져 간 김광석이 그 중 하나다.

아울러 전국민주화운동연합(전민련) 등의 재야민주화운동단체에 투신하거나 기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들은 전대협 활동가와 그 전후 세대를 아울러 기성정치로의 진입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의 미래 제3의 힘'(1999)을 결성한다. 돌이켜보건데 '제3의 힘'은 전대협 세대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식적 선언이었다. 이후 이들은 김대중의 '새천년 민주당'의 '젊은 피 수혈' 과정을 통해 속속 정치입문을 시작한다.

2000년 총선을 필두로 전대협 활동가의 정치진출은 새로운 기대를 생성시켰다. 전대협 정신의 바탕 위에서 국가 대개혁과 조국 통일의 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사를 완성할 기개와 포부가 전대협 활동가들의 역사적 임무라는 말이 전대협 출신 활동가 사이에서 회자되었다. 이른바 전대협 시즌(season) 2가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 사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같은 컨센서스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전대협 출신 활동가 전체의 분위기로 급속하게 자리 잡았다. 정치 영역으로 투신한 활동가는 물론 생활인 1986세대로 살아가는 전대협 활동가 모두의 동의가 발로한 측면이 강했다. 전대협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차별적 우리'를 강조했다. 4·19 이후 역사적 대중운동의 승리 경험과 100만 대중 동원 능력을 갖추었고 골방 안의 활동가가 아니라 대중과 함께 훈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정치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정치에 나서는 이와 그들을 돕는 이들 모두에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전도는 양양해 보였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정치인을 매개로한 국민과의 협업이었다. 학벌이 좋다거나 능력이 출중한 정치인이 국민적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정치 영역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도 함께 필요했다. 출발은 만만치 않았다. 2000년 총선에서 1명(임종석, 전대협 3기 의장)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전대협은 2002년 겨울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전대협 신화의 재현을 위해 와신상담을 꾀하고 있었다. 역사는 전대협의 편이었다. 2004년 보수 진영의 노무현 탄핵에 대해 사회는 자기보호 기능을 작동시켰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보수 진영을 단죄하고 노무현 진영으로의 개혁 구심을 몰아주는 이중 운동을 연출했다. 진보 진영의 의석이 과반을 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 안에 신화의 주인공 전대협 활동가들이 제 세상을 만나고 있

었다. 전대협이 또 한 번 국민의 힘에 승차한 것이다. 이 당시 언론에서 이들 전대협 세대가 일사분란하게 행동 대오를 갖춘다면 그 파워는 막강할 것이라는 예측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11] 진정 그들이 그때부터 전대협 정신으로 뭉쳤으면 지금의 한국 정치 지형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전대협 정신으로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586이라는 이름으로 명찰을 바꾸어달고 기득권 '꼰대 노릇'이나 한다고 비판받고 있다.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 언론에서조차 그들을 부역 정치, 해바라기, 패거리 집단으로 일갈한다. 이들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록 정치인은 아닐지라도 86세대의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필자는 언론과는 좀 다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이들이 비판받아야 할 이유는 과반의석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신화의 영웅들에게 요구한 물러서면 안 되었을 단 하나의 과제, 한반도 반민주·반평화의 기원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정치 투신의 가장 큰 이유는 사회개혁의 구조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혁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부터 잘라 없애야 가능하다. 전대협 활동가 중에 그걸 모르는 이는 없다. 그래서 그들이 국회에 간 이유가 궁금했다. 과반이 넘는 천우신조의 기회에 국보법을 철폐시키지 못함으로써 피로 써내려간 민주주의

11) 이 때 진출한 전대협 출신은 이인영, 복기왕, 백원우, 우상호, 오영식, 한병도, 최재성, 이철우, 이기우, 임종석, 김태년, 정청래 등 12명이다. 삼민투 출신은 고진화, 강기정 등 2명이었다. 월간중앙 2004/06 참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의 역사가 피를 부르는 과거의 것으로 되돌려지고 말았다. 이후 등장한 보수 정권은 반동의 역류를 여지없이 실천했다. 삶이 죽음으로 바뀌는 고통의 시간들은 오롯이 수많은 민중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민주화 30년의 지금, 감시와 폭압, 조작과 폭력이 민주주의 자리를 매우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마각처럼 서 있지 않은가?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법 자체의 폐지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2004년, 아무리 당내 정치역학이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지언정 돌파했어야 했다. 시간의 흐름 속에 386이 586이 되었듯이 권위주의와 폭압의 박정희 체제가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꾼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86 정치 세대가 옛 것의 정치판으로 묻혀 들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열어갈 개혁 세상의 문은 국보법이라는 철문에 가로막히고 만 것이다. 그리고는 전대협 정신의 정치는 개점도 하기 전에 시련을 맞는다. 2008년 총선에서 이들은 한 둘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치면서 전멸하다시피 했다. 이들의 낙선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 낙선한 전대협들은 이제 오직 자신들의 당선이 목적이 되고 말았다. 뷰케넌(James Buchanan)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안긴, 정치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행동(선택)은 시장 선택과 공공 선택의 동기 유발 모두에서 자신의 이기심에 있다는 공공선택론(public choice)[12]이 그들에게 한 치의 오차 없이 적용되었다. 전대협 정

12) 공공선택론은 정치 과정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한 학문으로, 정치인이나 관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정치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이익이 희생되는 '정치의 실패'를 주 사례로 든다.

신을 정치권에 인입하고자 했던 정치 투신의 초심은 당선을 위한 전략에 묻혀갔다. 당선을 위해서는 지역과 세대, 부문을 막론하고 자신 이외의 그 어떤 이도 자신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강조해야 했다. 이른바 전대협 독사(doxa)의 생성이다. 전대협의 희생과 헌신이 이 땅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었고, 희생의 역사에 그들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공천을 전제로 당선이 있는 것이니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은 공천 방정식의 독립변수가 되어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고 정치영역에서 활동이 거듭되면서 그들은 전대협의 독사 안에 자신도 모르는 독사의 함정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독사의 함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비단 전대협 출신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대협 30년. 전대협 활동가 정치의식조사'에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정치와 통일,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여타의 비교집단보다 월등한 진보 성향을 유지했다. 이 현상을 전대협 활동가들의 변함없는 진보 성향으로 보는 시각과 이들이 자신들이 진보적이고, 실천적이며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전대협 독사에 갇힌 저들만의 섬, 섬사람들 같다는 분석이 엇갈렸다. 그럼에도 후배 세대들은 전대협 세대를 기득권으로 평한다. 진보와 기득권, 성립하기 힘든 조합이 상대적 평가의 가위 끝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대한민국 현실에 존재하는 이야기다. 이제 전대협 출신 정치인과 전대협 세대 모두는 그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에게서 우호적인 평판과 신망을 잃고 말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1993) 개념을 빌려볼 때 전대협은 전대협 건설, 6기까지의 활동, 사회 진출의 연속성을 통해 사회 안에서 정치적 상징 자본(symbolic capital)을 획득했다. 전대협 이름의 이면에는 민주화투쟁과 시대정신, 희생과 영웅 등이 그림자처럼 함께했다. 전대협을 통해 전대협 이후에 명예와 위신,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했다. 사회는 전대협 활동의 기억을 통해 그들을 민주화 역량의 상징으로 승인(recognition)한 것이다. 물론 민청련도, 민청학련도 또 그 이전의 민주화투쟁의 조직도 그런 경로를 겪었지만 정치적 상징자본을 축적할 조건인 대중적 혁명 에너지와 만나는 역사적 행운은 전대협에게만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상징 자본의 획득이 용이했다. 그러나 민주화투쟁에 대한 희생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리더로서 주목받거나 사회 성원에게 부여받는 영웅 대우의 상징 자본은 한번 새겨지면 영속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회 공간 안에서, 자신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수시로 경쟁하고 협상하는 사회적 영역이었다(Blackledge 2001). 따라서 전대협 출신의 상징 자본 획득자들 역시 자신들이 획득한 상징 자본의 획득과 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규정하고 사회성원들과의 협상을 지속했어야 했다. 30년을 보낸 지금, 전대협 활동가들은 분명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 상징 자본의 소유자들은 사회가 함께 생성한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지와 그 신화를 얼마만큼 사회 안에 실제로 형상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끊임없이 내놓아야만 한다. ‘신뢰’가 무너지고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으면 상징 자본을 획득하도록 허락한 사회는 더 이상의 축적을 용인하지 않는다. 관심이 옮겨가

는 것이다. 반면, 상징 자본을 획득한 이들은 기득권의 영역으로 마음의 자리를 옮기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어기제로 자신들의 상징 자본(전대협)을 활용한다. 희생과 헌신 속에서 민주주의 표상이었던 전대협이 기득권의 상징으로 비판받는 현실이 부지불식간에 전대협 활동가의 삶 앞으로 몰아닥친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는 신화를 잊는다. 그러나 바로 그 신화는 전대협 활동가 개인들의 가슴속에만 절절히 남아 '나'를 대체할 그 누구도 허락할 마음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정치적 상징 자본을 획득한 전대협 30년의 단상이다. 신화를 통해 획득하고 국민들로 부여받은 정치적 상징자본은 일그러져 있음이 분명하다.

7. 전대협 신화의 지속과 자기 실현적 예언[13)]

2017년 8월 19일은 전대협 출범 30년을 맞는 날이었다. 필자는 전대

13) 자기 실현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이란 예언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현상이 예언대로 된 현상을 말한다. 자기 충족적 예언, 자성 예언이라고도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명칭은 그리스 신화 속의 피그말리온에서 유래되었다.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조각한 여성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이를 지켜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수록한 고대 로마의 오비디우스의 《변신이야기》 제10권에 수록되어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협 동우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대협 30년을 맞고 있는 우리들의 단상을 진단하기 위해 '전대협 30년, 전대협 활동가 정치의식조사'와 전대협 활동가와 선후배 세대들과 '집담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30주년 기념행사로서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시대의 흐름에 묻어난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전대협의 초심이 남아 있을까? 지천명의 나이를 뒤로하고 있는 우리는 역사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고 자답하기엔 하늘이 부끄러웠다. 전대협 출범 30년, 우리는 우리가 쌓아올렸던 신화가 그 세월만큼 회자되는 동안, 우리는 그 신화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 왔을까? 발붙이고 있는 현장이 어디든 간에 '전대협 활동가'였다는 꼬리표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자부심이었다. 전대협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었다. '승리의 경험', '백만 군중을 묶어 세웠던 기억'이 우리가 펼치고자 하는 일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켰다. 근대의 과제와 탈근대의 숙제가 쾌속의 질주 속에 광장에 흩어 놓아졌던 30년사의 수많은 사건들, 그러니까 민족의 운명을 달리할 거대 사건들이 반도를 훑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국외자로 살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했다. 1992년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1997년 IMF 금융(외환)위기의 기업 파산과 실직·자살 사태, 한미 FTA, 2013년 광우병 사태와 시청 앞 촛불,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 등등이 우리를 거리로 불러냈다. 어찌 보면 사회 변혁의 행동대로서 늘 개혁과 함께하고자 했던 것이 전대협 활동가들의 삶이었다.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집회현장에서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원흉 이명박 아웃", "박근혜 탄핵"을

외치며 전대협의 얼굴들을 맞이하곤 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오히려 그들이 손잡고 나온 그들의 자식들에게서 예전 동지들의 얼굴을 더 잘 기억해내면서 말이다. 그리고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5월까지 펼쳐진 광화문 촛불의 파노라마에서 다시금 1987년을 느끼며 역사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나 전대협 30년을 지나 보내는 지금, '승리의 경험'이나 '불패의 신화'와 같은 단어들이 문득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먼 기억의 저편에 풍경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화의 기운이 더 이상의 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신화의 주인공들은 기득권의 단맛에 안주하는 듯한 느낌이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선배 세대는 전대협 세대가 블랙홀처럼 정치적 지위와 권력을 빨아들인다고 시기한다. 한총련을 건설하고 민주화운동을 전대협 세대만큼 치열하게 전개했던 후배 세대들 역시 전대협 세대를 자신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기득권층으로 치부하고 비판에 나선다. 우리 자식 세대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헬조선'이라 하고 이민 떠날 생각에 골몰한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의 자살과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도 OECD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지표상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30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여전히 세계경제의 상위수준에 랭크하는 거시경제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1997년 이후의 20년의 성장은 국민들에게 있어 '자살 친화적 성장'(최상명·김승원 2014)이요, 성장의 결과는 '헬조선 대한민국'인 셈이 된다. 통일의 바람은 멀어져 가고, 반도는 지금 핵공포와 마주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0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586이 되어있다. 1997년 신자유주의 침공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이후의 국가 개혁 의제도 선점하지 못했다. 여야의 구별에 앞서 기성과 현세대를 구분하고 기성세대를 '자살 친화적 성장'의 원흉으로, 우리(전대협 세대) 역시 공범으로 지목당한다. 우리 중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우기는 이들(전대협 활동가)도 있지만 후배 세대와 자식 세대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아니라고 우기기엔 우리가 가진 것이 그들에 비해 너무도 많다. 적어도 기회에 있어서 말이다.

전대협 신화는 우리를 강제하는 힘이었다. 그래서 신화는 우리 삶에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1993년 '전대협 동우회'를 발족시키고 전대협 정신을 잊지 말자고 서로를 다잡으며 살아온 오늘, 우리에게 전대협 신화는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고 그 자리엔 '전대협 독사'만이 대신하고 있다. 전대협 동우회에 형성된 우리들만의 관례와 관습, 가치와 규범이 '불패의 신화', '민주주의 투사'로 고착된 이데올로기 안에서만 정당화 되어 있다. 신화는 사라지고 승리는 패배로 전개되는 현실에서 전대협 신화는 도구상자—필요한 순간에 활용되는 도구—로만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패의 신화'가 변화무쌍한 사회 현실에 새로운 버전으로 재편되지 않을 때, 그 신화에 의존하는 삶은 이미 독사의 오류에 젖어들어 있게 된다. 전대협의 독사는 역설을 생성시킨다. 진보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전대협 활동가들이 신화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신화의 신 버전을 내놓지 않았다면, 전대협 활동가들은 그들이 알고 행하는 상식과 단절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상식은 이미 거짓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기성정치 질서에 그들은 고

스란히 포위되어 버린다. 전대협을 독사라 부르는 새로운 역설(paradox)이 사회의 여러 방면에서 생성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대협 30년이 지나는 지금, 우리는 '혁명하고 있지 않는 우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의 대전환은 사회운동의 이행궤적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기성의 것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자를 세상은 민주주의자로 허락한다. 파레시아(Parresia)란 푸코(Michel Foucault)의 후기 철학적 관심에 의해 발굴된 고대 그리스 말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나 '비판적 태도' 정도로 해석된다. 공적인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뜻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갑자기 파레시아 담론을 꺼내 드는 이유는 작금 전대협 활동가들이 처한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진실을 말하는 용기', '위험을 감수하는 말하기'에는 그 말의 타자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타자의 존재가 독재자나 폭력적 권위일 때 파레시아는 마비된다. 파레시아가 마비되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파레시아스트가 되어야 한다. 침묵도 파레시아를 마비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타자로 파레시아의 노력을 멈추는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춘다. 민주주의 작동이 멈춘 그곳에 독사와 기득권만이 자리한다.

30년 전, 우리가 군부독재라는 타자에게 파레시아스트였듯이, 우리는 지금 스스로가 설정해놓은 독사와 기득권의 파레시아스트가 되어야 한다. 자기 실현을 다하지 않는 영웅들에겐 더 이상 신화에 의한 운명의 방정식은 작동하지 않는다. 전대협은 집단의 동질성과 의식 정향의 역사적 합목적성을 조건으로 위력을 발휘한다. 정치적 상징자본의 축적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제(accumulate mechanism)는 '신뢰'와 '성과'다. 전대협이 30년 전의 신화를 시대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대협 신화를 다시금 되새기고 곱씹으며 자신과 서로를 강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신화의 재현을 위해 자기실현적 예언을 반복해야한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에게 신화와 통하는 운명의 방정식이 그 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노력이 사회의 신뢰를 얻고,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파레시아스트로 인정받는 순간이 오면, 30년 전의 전대협 신화가 다시금 우리의 시대 안으로 묻어 들어올 것이다. 그 신화를 실천할 기회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이 전대협에 대한 나의 간곡한 애정임을 고백한다.

참고문헌

(사)6월항쟁계승사업회. 2007. 『6월항쟁을 기록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1987년 6월항쟁 사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돌베개.

이영자. 2015. 『자본주의 신화와 독사』. 나남.

우상호 외. 1994. 『불패의 신화』. 두리출판.

최상명·김승원. 2014. "경제성장·소득분배·사회지표 간의 관계분석을 통한 성장 중심 거시경제정책 평가." 『동향과 전망』 여름호. 한국사회과학회.

푸코, 미셸(Michel Foucault). 2017. 『담론과 진실』. 오트르망(심세광·전혜리) 옮김. 동녘.

「경향신문」. 1986/10/31. 11면.

「동아일보」. 1987/08/19.

「프레시안」. 2017/01/19.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민주화운동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인터뷰 2017.03~2017.09 진행 박영호(충북대학교), 신채호, 우상호(이상 연세대학교), 신원철(인천대학교), 정지환, 이철우(이상 서울시립대학교), 최진섭(숭실대학교), 정화려(한양대학교), 최종윤(고려대학교), 정훈(전북대학교) 등이다.